



11월 11일 2012년



“교육을 통한 이슬람 선교의 문을 연다”

창세 국제 학교를 위한 기도

파키스탄 창세국제학교
나이가 세 살 반 [2009년
가을 설립] 이 되어갑니
다. 여름 방학 동안 고향
집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
하고, 학교로 돌아온 3학
년 ‘레베카’가 열병으로
주님 품으로 간 슬픔을
디진고 모든 선생과 학생
들이 다시 열심히 공부하
고 있습니다. 또 매일 말
씀을 암송하며, 예수님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그완’
5학년 학생의 인터뷰를
전달받았습니다. 매일 성
경 암송을 잘 하는 똑똑

한 남학생입니다. 장래
소망은 변호사가 되어 억
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국제학교를 통한 무
슬림 선교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교입
니다. 신학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목사나 선
교사만이 감당하
는 선교가 아닙
니다. 오히려 평
신도라야 입국
비자받기가 쉽
습니다. 주님을 사

랑하고, 주 예수님께 순
종할 믿음과 열정을 가진
전문인이나 교사라면 가
장 효율적으로 감당할 선
교입니다.

운영위원장 김정오 드림



아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원 파키스탄 무슬림 어린 영혼의 구원과 미래를 위해

0., 비전 창세국제학교를 통해 (희망의 일군)과 (영향력 있는 일군들)이 세워지도록

1., 건축 학교 건물, 2층 완성 [내년 여름 목표]과, 100명 학생 양육을 위해

2., 봉사자 창세국제학교에서 (봉사자)로 [2주*한달*한학기*일년] [섬길 젊은이와 교사를 위해

3., 교장 장기적으로 창세국제학교를 이끌어갈 준비된 (교장), 선생을 위해

4., 교감 새로 부임한 파키스탄인 (교감) 삼손선생 [신앙*실력*리더십을 겸비함]을 위해

5., 열린 문 모든 위험에서 안전*전도 기회*재정 지원*일군 조달이 이루어지기를